

"우리는 일본의 모든 원자력 (핵) 기술로부터의 신속한 철수를 요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10년에 즈음한 성명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지금

우리는 54회 정기 총회에서 "일본의 원자력 행정을 우려해[무핵무병사회를 목표로하는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일본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거부를 주장했다. 그러나 원자력 행정은 변함없이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재해에 있어 인류역사상 미증유의 대공해 사건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또한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 후쿠시마에 있는 여러교회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10년에 즈음하여 여기에 다시 우리의 성명을 발표한다.

1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 발령중이며, 사고 수습은 전혀 목표가 잡히지 않는다. 트리튬 오염수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해양 투기를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해양 방사능 오염이며, 우리는 결코 허용 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유일한 책임은 한 기업과 그것을 국책으로 추진한 국가에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빼앗기고 정든 땅에서 쫓겨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현상이 지금도 진행 중이며, 방사능에 오염된 상태의 대지가 펼쳐져 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는 않된다.

[절대 안전][경제에 필요] 라고 하는 [신화]로 장식되어 온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무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피폭 안심 신화]가 만들어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문제, 생활 파괴의 문제는 마치 없었다는듯이 경시되고 피폭의 위험을 피해[자주 피난]을 결단한 사람들이 방치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원전이 재가동 되어왔다. 한편으로 심각한 현실은 진행하고 있다. 사고에 따른 용융 연료 및 사용후 플에서 사용 후 연료의 반출·철거 작업은 아직 온전히 남아있다. 또한 [귀환 곤란 지역]이 설정된 상태에서 광범위한 고선량 피폭 지역이 아직도 여전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재개되고 있다. 수북이 쌓인 위험한 [방사능 제염토]는 방치된 상태이다. 또한 구[피난지시]지역 내에서 초 중학교 등이 재개되고 있다. 그 때, 일본 정부가 근거하고있는 [허용 연간 피폭 20 밀리 Sv]는 2011년 5월 23일에 의도적으로 상향된 것이며, [공중의 허용 연간 피폭량은 1 밀리 Sv]로 한 국제 기준에서 봐도 [피폭 안심 신화]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2021년 1월 15일에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때 18세 이하였던 현민을 대상으로하는 검사에서 갑상선 암으로 진단된 사람이 지난해 6월말 현재 총 202명이됐다]로 보도된 (시사 통신사). 내각부는 [(소아 갑상선 암에 대한) 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100만명에 1명 또는 2명의 발병률](스즈키 신이치 후쿠시마 현립 의대 교수 · 2012년 9월 12일 [후쿠시마 민보]) 라는 종래의 통설과도 모순된다. 또한 사고 수습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피폭을 강요 당하면서 작업을 매일하고 있으며, 그 현장에는 아시아 각국에서의 기능 실습생도 동원되고 있다. 약한 입장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피폭을 강요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있어서는 안 현실]을 간과해선 않된다.

(2) 파산한 '핵연료 사이클'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그 시작부터 일관되게 사용 후 연료를 재 처리하여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추출하는 [재 처리 공장]과 사용한 플루토늄의 양 이상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고속 증식로]를 보유하는 [핵연료 사이클]을 목표로 해왔다. 이 때문에 각지의 원전에서 사용 된 [사용 후 핵연료]는 사용 후 연료 풀에 비축하고 그중 일부는 영국과 프랑스의 재 처리 공장에 재 처리를 위탁 해왔다. 그런데 1993 년에 착공 한 로카쇼무라 재 처리 공장은 28 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완성을 보지 못했다. 또한 국가는 2016 년에 고속 증식로 [몬주]의 폐로를 결정했다. [사이클]이 [사이클]하지 못하게 되어, 원전을 추진하는 계획도 완전히 파탄 이른바 원전 자체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계속 증가해 2018 년 말 현재 45.7 톤이 되었다 (내각부보고). 이것은 나가사키 형 원폭으로 환산하면 6 천발에 해당하는 양이다.

[핵연료 사이클 계획]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고 가운데 국가는 당초 계획에 없던 플루토늄 연료를 사용하는[폴서멀 발전]도입을 목표로하게되었다. 이에 대해 양식있는 과학자들은 [석유 스토프의 연료로 가솔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다](후지타 히로타카 전 게이오 대학 교수 등) 라며 시민들과 함께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종을 울려왔다. 이외에, [폴서멀]에서 생긴 플루토늄 연료는 로카쇼무라 재 처리 공장에서는 [재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더 까다로운 [핵 쓰레기]가 증가하게 된다.

핵 기술은 [평화적 이용]도 [군사 이용]도 아닌, 표리 일체이다. 파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원전과 재 처리 플루토늄을 고집 나가는 것이 [핵무장 목적이 아닌가?]라는 세계로부터의 의심을 낳고, 특히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의 행보에 위협이되는 것이다. 이것은 평화와 공생을 추구 계속해온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보와 모두 어긋난다.

(3) 미완의 기술

원자력 (핵) 기술은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핵 쓰레기]를 처리 할 수없는 [미완의 기술]로 있어왔다. [핵 쓰레기]는 비교적 안전한 선량으로의 감소까지 10 만년이 걸리는 것으로, 모든 생명으로 부터 완전 격리를 요한다. 원자력 (핵) 기술은 경제를 무엇보다 최우선으로한 지금의 세대가 만들어 낸 [핵 쓰레기]를 후대에 짊어지게 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무책임한 기술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핵 쓰레기]최종 처분 방안으로 정부는 [지하 매설 처분 계획]을 추진해왔다. 2020 년 10 월에는 홋카이도 슷쓰정 가모에나이촌이 처리지 선정의 제 1 단계가되는 문헌 조사 수용을 표명했다. 원전 입지 지역이된 과소 지역이 [교부금 중독]이되어, 지역이 분단된 뿐만 아니라 전력에 의한 편의는 도시가 누리고 부담스러운 것은 소외 지역에 밀어부쳐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오만한 구도가 여기에있다. [지하 매설]도, 원래 일본에는 [절대 안전한 장소]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운전 금지 판결이 곳곳에서 잇따랐다. 오는 2015 년 3 월 후쿠이 지방 법원에 의한 칸사이 전력 타카하마 3 · 4 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금지 가처분 결정. 2020 년 1 월 히로시마 고등 법원에 의한 시코쿠 전력 이카타 3 호기 운전 금지 판결. 2020 년 12 월 오사카

지방 법원에 의한 간사이 전력 오오이 3·4 호기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설치 허가 신청 취소 판결. 이러한 판결은 모두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큰 희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활동층 대륙 플레이트, 화산대가 혼잡하여 지각 변동이 활발하고, 심지어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극심화와 맞물려 일본에는 원자력 시설이 가동하고, 지하 매설 처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는 없다는 것의 증거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 및 각 전력 회사에 모든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지하고 [핵 쓰레기]의 처분 방법에 대해 모든 지혜를 결집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모든 핵 기술에서의 철수를 호소

우리는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여 일본의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온 정/재/관/학/언론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 마을]의 오만을 규탄 함과 동시에 일본의 모든 원자력 (핵) 기술의 조속한 철수를 요구한다. 피폭자 인 철학자 모리타키 이치로는 [평화적 이용]과 [군사 이용]에 상관없이 [핵과 인간은 공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게다가 약한 생명의 희생 위에서만 성립되는 시스템을 명확하게 거절한다.

동시에 다음 사항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 이 기술을 만들어 낸 배경에는 타인을 유린하고, 더 강하고, 더 많이, 더 풍부하게 지금만 좋으면 그것으로 좋다라는 가치관에 젖어 온 우리 자신이있다. 원자력 (핵) 기술을 포기할 것을 추구하는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도 방향 전환해야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하신 이 땅은 태양 · 지열 · 풍력 · 수력 · 조력 등 모든 재생 가능 에너지로 넘쳐 있음을,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한다. [신음하는 하나의 피조 세계]안에 함께 살고있는 우리는 과학 기술을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순종하지 않고, 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강요된 피폭에 의해 고통과 위협을 받는 생명과 연대해 나갈 것을 여기에 표명한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
(로마서 8 장 22 절)

2021 년 3 월 11 일
일본 침례연맹 공해 문제 특별위원회